

여드름의 治療方法 研究

경희대학교 朴 贊國·대전대학교 崔 三燮

1. 序論

여드름은 青春의 象徴이라고 하지만 思春期를 지나 사라질 때가 되었는데도 없어지지 않거나 더 심해진다면 苦悶이 아닐 수 없다. 이는 美容上의 問題일 뿐만 아니라 肉體的인 健康이나 精神的으로도 深刻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根本的인 原因은 火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火熱은 心과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窮極的으로 여드름은 心火가 鬱하거나 過盛하여 舒暢되지 못하여 發生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卽 여드름은 火氣가 用事하기 始作한 青春期에 人體의 上部와 顔面에 주로 나며, 그 象이 마치 火山이 爆發하거나 꽃이 피는 모습과 類似하다. 또한 歷代의 많은 醫書들도 熱을 여드름의 代表的인 原因으로 論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治療方法으로 心火를 내리는 方法을 講究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單純한 論理는 心火가 鬱하거나 過盛하게 되는 여러가지 原因을 무시한 것이다. 卽 心火가 過盛하거나 鬱하게 된 것은 心 自體의 問題일 뿐만 아니라, 心火의 盛衰와 舒暢發散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餘他의 臟腑나 邪氣등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心火가 正常的인 生理過程을 거치지 못하고 異常狀態를 나타낼 때에는 七情이나 六淫등의 觸發로 因해 心火의 作用에 平衡이 失調되어 發生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治療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을 充分히 考慮하여 單純히 여드름이라는 한 症狀만을 治療의 目的으로 삼아서 안되며, 여드름이 過度하게 發生한 原因을 全體的으로 살펴 보다 根本的인 治療를 해야 할 것이다. 萬若 火熱이 原因이라고 하여 單純히 火熱을 치는 藥만을 過用한다면, 一時的으로 症勢가 好轉될 수도 있겠지만 結局은 낫지 않거나 副作用이 發生하여 더더욱 治療가 어려워질 것이다.

論者도 처음엔 單純히 心火를 치는 藥으로 治療를 試圖하여 보았지만 所期의 目的을 거둘 수 없었으며, 結局 辨證施治의 方法으로 治療하여 若干의 成果를 얻을 수 있었다.

經驗과 實驗方法上의 未熟으로 施行錯誤를 거듭하여 企待한만큼 훌륭한 實驗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資料를 證據로 提示하지 못하는 것을 遺憾으로 여기며, 不足하나마 그동안 얻은 바 結果를 下文에 記述하여 基礎理論과 臨床上 應用에 若干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코자 한다.

2. 여드름 疾患의 原因에 對한 理論的 分析和 辨證論治

〈講究〉

萬物이 生成變化를 겪지 않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또한 生老病死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黃帝內經 素問》首篇에서 男女를 區分하여 明確히 論하고 있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女子의 三七 二十一과 男子의 三八 二十四 以前에는 腎氣가 發揚하여 旺盛하게 活動하여 臟腑와 筋骨氣血을 滋養시키는 時期이므로 腎氣를 爲主로 하여 그 生理變化를 論하였고, 四七 二十八 四八 三十二 以後로는 腎氣가 長盛하여 衰弱해져가는 時期이므로 腎氣의 盛衰에 따른 陽明脈이나 筋骨의 變化를 中心으로 說¹⁾하고 있다.

1) 《精校 黃帝內經 素問》 P. 11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여기서는 일단 여드름을 가지고 論하려 하므로 여드름이 많이 發生하는 三七 三八 以前의 生理에 對하여 살펴보고, 또 어떻게 여드름이 發生하는지에 對하여 病理機轉을 알아본 다음 이에 對하여 몇가지 臨床 實驗을 根據로 그 治法을 提示하고자 한다.

《黃帝內經 素問》首篇에 論하기를 ‘女子는 三七, 男子는 四八이면 腎氣가 盛해져서 이를 갈고 筋骨이 굳세진다고’²⁾ 하였다. 이 腎氣가 盛하다는 것을 五行의 變化로 살펴보면 水에 간혀있던 陽氣가 자라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腎에 있는 陽氣가 盛하고 相對的으로 陰氣가 弱해져서 陽氣 즉 木氣(五行中 水로부터 陽氣가 始發하는 段階이므로 이때는 陽氣를 木氣라 할 수 있다.)가 旺盛하게 活動하게 됨을 말한다. 이처럼 水에 간혀 있던 陽氣가 發揚하여 生理機能이 旺盛하여지므로 筋骨肌肉이 튼튼해지며, 특히 이빨은 腎氣의 滋養을 직접 받아 자라는 것으로 더욱 影響을 많이 받아 變化가 甚하니, 따라서 이를 “眞牙生而長極³⁾”으로 表現하고 있다.

二七 十四, 二八 十六 以前까지는 木氣가 漸次 旺盛해지는 때인데, 이 때 順調롭게 發揚되지 못하면 氣가 壅滯되어 生理的 異常이 發生하게 된다. 이러한 異常이 皮膚에서 發生하면 癩과 같은 것이 나타나니, 이를 사마귀라 한다. 즉 사마귀는 바로 女子는 七歲以後, 男子는 八歲 以後에 木氣(肝氣 或 陽氣)가 旺盛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四肢末端에 사마귀가 많이 나는 것은 바로 이 곳이 人體의 끝으로 氣가 壅滯되기 가장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女子 二七 十四, 男子 二八 十六이 되면 木氣의 用事가 끝나고 火氣가 旺盛해지게 되니, 《黃帝內經 素問》에서 이에 對하여 말하기를 “女子 二七而天癸至하여 任脈通하고 太衝脈盛하여 月事以時下하니 故로 有子라……. 男子 二八에 腎氣盛하여 天癸至하고 精氣溢瀉하니 陰陽和하여 故로 能有子(女子는 二七 十四歲가 되어 天癸가 이르면 任脈이 通하고 太衝脈이 盛하여 月經이 때에 맞춰 내리니 故로 子息을 낳을 수 있다……. 男子는 二八 十四歲가 되면 腎氣가 盛하여 天癸가 이르러 精氣가 넘쳐 排泄되니 陰陽이 和調하여 故로 能히 子息을 낳을 수 있다. 4)”라 하였다. 여기서 天癸가 이르렀다는 것은 곧 한사람의 完全한 獨立된 個體로서 스스로 生命을 維持할 수 있다는 것이며, 任脈이 通했다는 것은 生殖能力이 갖추어졌다는 것이다. 月事가 있고 精氣가 넘쳐 배설된다는 것은 自體內에 生産活動이 旺盛함을 말한다. 즉 女子가 二七 十四歲가 되고 男子 二八 十六歲가 되면 木氣의 活動이 弱해지고 火氣의 活動이 旺盛해지기 시작하니, 人體의 生理的인 異常에 있어서도 木氣의 異常으로 發生한 사마귀는 漸次 사라지고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다. 여드름은 주로 面部를 中心으로 人體의 上部에 布散하며 心火의 作用이 不和하여 發生하는 것이다. 즉 사마귀는 木氣가 旺盛하게 活動하는 時期에 陰이 아직 有餘하여 木氣가 제대로 發揚되지 못하므로, 氣가 發揚되어 外部로 나가는 通路인 四肢末端이나 皮膚에 草木의 움이 돌아나듯이 나는 것이며, 여드름은 火氣가 發揚되는 것이 順調롭게 外散하지 못하고 表徵이 外部로 드러나는 것으로 火氣의 炎上하는 性質때문에 얼굴, 가슴, 목등 주로 人體의 上部에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能有子. 三七 腎氣平均 故眞牙生而長極. 四七 筋骨堅 髮長極 身體盛壯. 五七 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墮. ……丈夫八歲 腎氣實 髮長齒更. 二八 腎氣盛 天癸至 精氣溢瀉 陰陽和 故能有子. 三八 腎氣平均 筋骨堅強 故眞牙生而長極. 四八 筋骨隆盛 肌肉滿壯. 五八 腎氣衰 髮墮齒槁…….

- 2) 上揭書 p. 11
- 3) 上揭書 p. 11
- 4) 上揭書 p. 11

많이 나타난다.

사마귀는 주로 十六歲 以前에 많이 나다가 火氣가 用事하여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 대체로 사라지며, 여드름은 十六歲 以後에 發生하기 시작하여 土氣가 用事하기 시작하는 二十餘歲를 限界로 漸次 없어진다. 그러나 이 나이를 넘어서도 여드름이 없어지지 않거나 도리어 더甚하게 나는 境遇가 있으니, 이러한 境遇는 대개 心火가 土氣를 生하지 못하여 發生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本者は 이렇게 火가 土를 生하지 못하는 것에 對하여 實驗을 通하여 原因과 治療方法을 찾아보고자 한다.

3. 實驗

實驗對象은 여드름이 甚하여 患者本人이나 實驗者가 治療를 要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무작위로 選擇하였다. 처음에는 여드름의 根本 發生 原因인 心火를 치는 方法을 擇하였다. 그러나 治療하는 過程中에 이러한 方法이 效果가 없을 뿐만 아니라 韓醫學의 基本的인 治療方法에도 어긋나므로, 中間에 方法을 變更하여 辨證論治의 原理에 따라 治療하였으며 단순히 여드름만을 治療의 目的으로 삼지는 않았다. 즉 患者가 가지고 體質과 여러가지 症狀들을 綜合하여 辨證하고 治療法을 講究한 다음 이에 따라 投藥하여 여드름의 治療여부를 觀察하였다.

1) 金 0 0

女子, 20세, 大學生

가. 症狀

中學校 3學年 때부터 여드름이 나기 始作하였으며, 高等學校 2학년 때에 增加하기 始作하여 甚해지다가 大學校 入學後에 若干 減少하기는 하였지만, 같은 나이의 女子들에 比하여 아주 甚하며 學校生活이나 精神의 問題가 되고 있다.

體型은 若干 中庸한 편이며 內性的이다. 食慾은 良好하며 消化도 잘되는 편이나 때로 腸이 꼬이듯 아프며 特히 試驗때 심하다. 여름에는 찬 것을 자주 먹는데 가끔 泄瀉를 한다. 疲勞할 때는 저녁때에 손발이 甚하게 부으며 입술이 잘 마른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汗이 甚하게 나며 大便은 하루나 이틀에 한번 程度이며 굳은 便을 본다. 睡眠은 良好하며 月經時에 若干의 絞르는 듯 한 疼痛이 있고 疲勞할 때 甚하며(高3때 始作) 덩어리가 있다. 脈은 細弱하고 若干의 不整脈이 있다.

나. 診斷 治療

처음(1991年 11月 1日)에는 單純히 心小腸火熱의 過盛으로 보고 十味導赤散⁵⁾을 投與하였는데 服用 初期에는 얼굴에 붉은 색이 漸次 사라지고 顔色이 밝아졌으며 諸症狀이 若干 好轉되다가, 藥을 모두 服用하고 난 얼마 後부터 다시 惡化되기 始作하였으며 脈은 遲하고 無力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2次(1992年 4月 16日)로 內性的인 性格과 試驗때 諸症狀이 甚해지고 月經의 異常이 高3때 始作한 것에 根據하여 七情의 不調로 因해 肝氣와 心火가 鬱結한 것으로 보고, 歸脾湯⁶⁾에 溫膽湯⁷⁾을 合方하여 投與하였다. 이와 더불어 患者에게 活達하게 生活하도록 勸告하였다. 이 藥을 服用한 후 大便이 좋아지고 手足이 붓는 것이 없어졌으며 腹痛(때로 腸이 꼬이는 것)이 사라졌

5) 十味導赤散方 : 甘草, 生地黃, 木通, 麥門冬, 茯神, 地骨皮, 半夏, 赤芍藥, 黃芩, 黃蓮 各一錢 入生薑五片.

6) 歸脾湯方 : 當歸, 龍眼肉, 山棗仁, 遠志, 人參, 黃芩, 白朮, 白茯苓 各一錢, 木香五分, 甘草三分, 大棗二個, 生薑五片.

7) 溫膽湯方 : 半夏, 陳皮, 白茯苓, 枳實 各二錢, 竹茹 一錢, 甘草五分.

다. 同時에 여드름이 줄어들었으며 顔色도 붉은 기운이 점차 사라지고 밝아졌다. 이以後로 完全히 治療되지는 않았지만 漸次 좋아지고 있다. 계속 觀察中이며 持續的인 治療와 性格의 變化가 必要하다고 生覺된다.

2) 車 0 0

23歲 軍(防衛)服務中 1991年 11月 29日

가. 症狀

여드름이 얼굴과 목, 등의 윗쪽 등 몸의 上體에 넓게 分布하고 있으며, 色은 약간 붉고 두드러기 정도의 크기로 隨時로 出沒한다. 顔色은 全體的으로 若干 어두우며 붉은 色을 띠고 있었다. 性格은 本來 內性的인데 入隊後 變化되었다. 平常時에 추위를 많이 타며 感氣에 자주 걸리는데, 感氣에 걸리면 惡寒이 甚하다. 손발이 차가우며 夜間에 步哨時 때(10月경부터) 손이 시리고 아프며 麻痺가 온다. 舌苔는 淡白色이며 齒痕이 있고 脈은 細數無力하다.

나. 診斷 治療

이 患者의 여드름은 本來 表의 陽氣가 虛한데 다시 寒邪에 感冒함으로 因해 虛弱한 陽氣가 外達하여 疏散되지 못하고, 表에 鬱結하여 發生한 것으로 보고 《傷寒論》의 桂枝加附子湯⁸⁾에 乾薑을 加味하여 먼저 10帖을 服用시켰더니, 脈이 和緩微有力해지고 舌苔가 微黃으로 變하고 手足이 따뜻해졌으며, 顔色이 밝아지고 붉은 氣運이 대부분 사라졌다. 여드름도 얼굴과 등에 큰 것 몇개를 除外하고는 없어지거나 色이 열어졌다. 이에 다시 위의 處方에서 附子를 去하고 20帖을 服用시켰더니, 몸의 狀態가 좋아져서 上記의 症狀들이 많이 消失되었으며 여드름도 大部分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도 氣運을 잃어 붉은 色이 黑色으로 變化되었다.

3) 朴 0 0

24歲 軍(防衛)服務中 1991年 12月 27日

가. 症狀

여드름이 89年初 軍에 入隊하기 前에 나기 始作하여 軍에 入隊後 甚해졌다. 形態는 크고 붉으며 主로 顔面部位에 散在하고 있다. 性格은 躁鬱하고 자주 變한다. 既往歷으로 5살때 엉덩이에 火傷을 입어 6個月동안 洋方病院에 通院治療하였으며, 任務隨行中 過勞로 麻痺症狀를 보인 뒤 鬻속 全體에 疼痛을 느끼고 3個月동안 入院 治療하였다. (治療後에도 腹部의 疼痛은 持續됨) 當時 1個月동안 食事を 못하고 洋方營養劑와 抗生劑等を 注射로 投入받았다. 當時에 大便은 黑色이었다. 平素에 손바닥에 汗이 많아 주먹을 쥐고 있으면 汗이 손바닥을 촉촉하게 적시며, 近來에 와서 大便은 다소 濡은 편이며 舌苔는 白色을 띠고 脈搏은 1分에 80番정도 뛰고 不整脈이 있다.

나. 診斷 治療

上記의 症狀으로 보건데 이 患者는 下焦 大小腸의 寒濕으로 上焦의 濁氣가 不降하고 心火가 上蒸하여 여드름이 發生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溫裏祛濕하고자 하여 五積散⁹⁾ 10帖을 投與하였더니, 배 아픈 것이 사라지고 手足에 汗이 나지 않으며 舌苔가 黃白色으로 變하였다. 여드름은 全體的으로 붉은 氣運이 사라지고 數도 줄었으며 새로 發生하는 頻度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다시 五積散 20帖을 投與하였더니

8) 桂枝加附子湯方 : 桂枝, 芍藥, 生薑 各三錢, 甘草 二錢, 大棗 四個, 附子, 枳實, 乾薑 各一錢.

9) 五積散方 : 蒼朮 二錢, 麻黃, 陳皮 各一錢, 厚朴, 桔梗, 枳角, 當歸, 乾薑, 芍藥, 白茯苓 各八分, 川芎, 白芷, 半夏, 桂枝 各七分, 甘草 六分, 生薑 三個, 芎 肆兩리.

諸症狀이 거의 사라지고 여드름도 顯著히 減少하여 더이상 治療를 하지 않더라도 靨
 瘡은 것으로 判斷되어 投藥을 中止하였다.

4. 治療結果의 分析 및 考察

《黃帝內經 素問》 第二篇에 “봄에 養生을 잘못하면 奉長者가 적고, 여름에 養生을 잘못하면 奉收者가 적고, 가을에 養生을 잘못하면 奉藏者가 적고, 겨울에 養生을 잘못하면 奉生者가 적다”라 하고, 또 “봄에 春氣를 거스린 則 肝氣가 內變하고, 여름에 夏氣를 거스린 則 心氣가 內洞하고, 가을에 秋氣를 거스린 則 肺氣가 焦滿하고, 겨울에 冬氣를 거스린 則 腎氣가 獨沈한다고”¹⁰⁾ 하였다. 여기서 注意할 것은 봄에 養生을 잘못하면 肝이 損傷을 받을 뿐만아니라 木氣가 充實치 못하므로 因해 木의 子인 火가 木으로부터 滋養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다른 四氣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즉 이는 五行의 相生關係에 異常이 發生하였음을 뜻한다. 이를 다시 論하면 心에 火가 鬱하면, 이는 單純히 心 自體의 火의 發散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肝氣의 疏泄 作用이나 脾土, 肺金의 作用에도 異常이 초래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 더 나아가 살펴보면 腎水가 閉藏을 못하여 心火를 上濟하지 못하므로 因해 心火가 上炎할 수도 있다. 따라서 心火가 鬱蒸하여 發散되지 못하므로 여드름이 發生하지만, 이는 心 뿐만 아니라 여러 臟腑의 異常이 모두 心에 影響을 미쳐 여드름을 發生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各原因의 差異에 따라 形態나 色, 크기의 差異가 있다.

첫째 金某양의 예를 보면 心에 火가 鬱結하여 疏散되지 못하여 發生한 것으로, 보다 根本的인 原因은 內性的인 性格과 外部의 環境에 對한 七情의 不和로 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狀態는 얼굴이 全體적으로 붉고 여드름이 連續하여 分布하며 境界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思慮過度로 心脾가 損傷될 때 쓰는 歸脾湯과 火의 母인 木의 發生을 돕고 肝鬱을 풀기 위하여 溫膽湯을 合方하여 使用하였는데, 服藥時에는 上當히 好轉되다가 試驗을 보거나 一身上의 問題가 發生하여 고민을 하게 되자 다시 再發하였다. 따라서 이의 올바른 治療方法은 藥物 治療와 더불어 精神的인 安靜이 必要함을 알 수 있다.

둘째 車某君의 여드름은 風寒을 外感한 다음 邪氣가 表에 鬱結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아니하고, 火熱로 傳變하여 內外로 疏通되지 못하여 나타난 것으로, 表證으로 發熱 惡寒이 있고 얼굴에 赤色이 나타나며 體表에 가려움症을 느낀다. 여드름의 色은 完全히 붉지 않고 크기도 적어 좁쌀과 같으며 서로의 區別이 明確하다. 이의 境遇는 《傷寒論 太陽病脈證并治》의 “太陽病 得之 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其人不嘔 清便欲自可 一日二三度發 脈微緩者 爲欲愈也 …… 面色反有熱色者 未欲解也 以其不能得小汗出 身必痒 宜桂枝麻黃各半湯(太陽病 病을 얻은지 八九일에 瘧狀과 같이 熱이나고 寒을 싫어하되, 그 사람이 嘔逆질 하지 않고 大小便이 靨瘡으며 하루에 두세번 發熱惡寒이 나타나고 脈이 微緩者는 나올려고 하는 것이다 …… 얼굴의 色이 도리어 熱이 鬱結한 붉은 色을 띠는 것은 아직 풀릴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그 땀을 조금이라도 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桂枝麻黃各半湯이 마땅하다.)¹¹⁾”이라 한 條文과 類似하나 脈이 細數無力한 것은 陽이 虛하다는 것을 말해주므로 桂枝麻黃各半湯¹²⁾을 쓰지

10) 春三月……逆之則傷肝……奉長者少. 夏三月……逆之則傷心……奉收者少. 秋三月……逆之則傷肺……奉藏者少. 冬三月……逆之則傷腎……奉生者少. ……逆春氣則少陽不生 肝氣內變, 逆夏氣則太陽不長 心氣內洞, 逆秋氣則太陰不收 肺氣焦滿, 逆冬氣則少陰不藏 腎氣獨沈.

11) 仲景全書 p. 127

12) 桂枝麻黃各半湯 : 桂枝 一兩十六字 去皮, 芍藥, 生薑切, 甘草炙, 麻黃 去節 各一

못하고, 桂枝湯¹³⁾에 附子를 加하여 陽을 補하면서 表邪를 푸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즉 車某君의 境遇는 陽氣가 虛弱하여 表邪를 完全히 驅出하지 못하고, 邪氣 또한 裏로 侵入하지 못한 것으로 陽氣를 補充하고 더불어 表邪를 풀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셋째로 朴某君의 境遇를 살펴보면, 李東垣은 《內外傷辨惑論》에서 “乃腎間受脾胃下流之濕氣하여 閉塞其下하여 致陰火上衝하여 作蒸蒸而躁熱하여 上徹頭頂하고 傍徹皮毛하여 渾身躁熱作(이에 下焦腎部位가 脾胃에서 흘러내린 濕氣를 받아 아랫쪽을 閉塞시켜 陰火를 위로 치솟게하여 蒸蒸한 躁熱을 發生하는데, 위로는 머리꼭대기에 오르고 옆으로는 皮毛에 미치어 온몸에 躁熱이 일어난다)”¹⁴⁾이라 하였으니, 朴某君의 여드름은 下焦大小腸에 寒濕이 積滯하여 上焦에 있는 濁氣가 不降하여 陰火가 發生, 表에 鬱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臟腑로부터 體表로 氣血이 宣布되던 宣布된 氣血은 四肢百骸를 營養하고 그 찌꺼기는 다시 內部로 들어와 大腸, 膀胱을 거쳐 밖으로 排泄되는데 이러한 升清降濁의 作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因해 陰火가 上焦와 表皮에 鬱結하여 躁熱과 여드름이 나타난 것이다. 治療는 元氣를 補하고 寒濕을 除去해야 할 것이다.

5. 結論

여드름에 對하여 陰陽五行論的인 分析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治療法을 講究해 본 結果 몇가지 結論을 얻었다.

여드름이 비록 火熱의 鬱結로 發生한다 할지라도 이의 原因은 心火나 陽明의 風熱뿐만 아니라, 人體 五臟六腑中 어느 臟腑의 異常으로도 火熱의 鬱結을 助長할 수만 있다면 發生할 수 있다. 또 精神的인 不和로 因한 火鬱이 여드름 發生에 直間接的으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重要한 原因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의 治療에 있어서 全體的인 症狀를 살펴서 正確하게 辨證을 하여 투약하고, 더불어 心理的인 安靜을 圖謀하여 心火의 鬱結을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單純히 肺의 鬱熱을 푸는 枇杷清肺散¹⁵⁾이나 心火를 치기 위하여 十味導赤散등의 定方을 濫用한다면 治療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副作用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洪元植:《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年
2. 張機:《仲景全書》 大成文化社 1989年
3. 李東垣:《東垣 十種醫書 內外傷辨惑論》 大成文化社 1983年
4. 祁坤:《外科大成》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5. 許浚:《東醫寶鑑》 南山堂
6. 申載鏞:《方藥合篇解說》 成輔社 1988年

兩, 大棗 四梅劈, 杏仁 湯浸 去尖 二十四個.

13) 桂枝湯方: 桂枝 去皮 三兩, 芍藥 三兩, 甘草 炙 二兩, 生薑 切 三兩, 大棗 劈 十二梅.

14) 東垣十種醫書 p. 30

15) 《外科大成》 P. 218 方: 枇杷葉, 桑白皮 各 二錢, 黃連, 黃柏 各 一錢, 人參, 甘草 各 三分.